

재일한인문학과 인종주의 - 최실의 『지니의 퍼즐』을 중심으로

이 경 재*

요약

이 글은 인종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에 바탕해, 재일한인 3세 최실이 쓴 『지니의 퍼즐』에 나타난 일본 인종주의의 특수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형 배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새롭게 주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열세 살의 어린 학생이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떼어내서 던져버리는 충격적인 '혁명'을 벌인 이유와 그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패전 이후, 일본은 문화를 본질화하고 이에 따른 서열화의 논리가 전경화 된 문화적 인종주의에 바탕한 단일민족적인종주의를 내세웠다. 이러한 인종주의는 2010년 무렵부터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헤이트 스피치를 통해 드러난다. 『지니의 퍼즐』에서는 일본의 제도적 인종주의가, 지니가 다녔던 일본학교를 통해 실감나게 형상화되고 있다. 『지니의 퍼즐』이 일본의 인종주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일본 인종주의의 특수한 형태인, '일본형 배외주의'의 작동양상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형 배외주의'의 핵심은 일본내 재일한인을 '한국이나 북한의 대리인'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최대로 끌어올리며, '북한의 대리인'으로 인식되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적개심을 동시에 끌어 올렸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니는 조선학교 교실에 걸려 있는 초상화 액자를 깨뜨려서 창 밖으로 집어던지는 행동을 한다. 열 세살의 지니가 일본의 인종주의에 맞서는 길은, 초상화로 상징되는 '북한이라는 네이션'과 절연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차별은 기본적으로 '차별을 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차별을 당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니의 '혁명'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혁명 이후'에 지니가 정신병동에 가게 된 이유는, 결국 자신의 '혁명'이 지니

*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모순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니의 ‘혁명’이 지닌 모순은, 일본의 인종주의가 얼마나 괴물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지 우회적으로 증명한다.

주제어: 재일한인, 단일민족인종주의, 제도적 인종주의, 일본형 배외주의, 에스니 시티, 네이션

목차

1. 서론
2. 다양한 인종주의의 양상
3. 인종주의에 맞선 지니의 ‘혁명’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
4. 결론

1. 서론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약 8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재일한인은 고향 많은 삶을 살아왔다.¹⁾ 재일한인은 일제 시기에는 일제의 ‘신민(臣

1) 일본에 사는 한인을 가리키는 말에는,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 ‘자이니치’ 등이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재일조선인’과 ‘재일한국인’은 각각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또한 ‘재일’이나 ‘자이니치’는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의미할 수도 있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재일교포’, ‘재일동포’, ‘재일코리아인’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이민호는 ‘동포(同胞)’, ‘교포(僑胞)’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로는 이들의 뿌리가 한민족이란 걸 알 수가 없는 암호”라는 점에서, ‘재일코리아인’은 불필요한 “한자와 영어의 혼용”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신 ‘재일한인’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데, “재일한인은 남북한을 아우르고 그들의 출신이 한반도에 있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용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민호, 「在日 조선적의 정체성과 무국적 동포정책의 모순점」, 『문학인』 15호, 2024년 가을호, 284면) 본고에서도 이러한 검토에 바탕해 ‘재일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재일한인의 하위 범주로는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또는 조선적)’, ‘한국계 일본인’이 있는데, 조선적은 2023년 말 기준 2만 2305명, 재일한국인은 41만 156명(「일본 법무성 재류외국인통계」(2024.7.5)),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계일본인은 39만 218명(「한국 외교부 2023 재외동포현황」(2022.1))이 있다. 재일한인 총수는 현재 82만 2,679명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글, 285면)

民)‘으로서 살았으나, 일제의 패망 이후에는 ‘외국인’으로 재편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내 외국인의 80퍼센트 이상은 재일한인이었으며, 1981년 일본이 유엔의 난민조약에 가입하고, 국내법을 그것에 맞추어 변경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의 사회보장 대상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카와이 유코는 재일한인들이 현재도 지방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은 일본국적자의 그것보다 ‘열등하다’는 서열화의 논리가 보인다고 주장한다.²⁾

이러한 재일한인의 삶에 바탕한 재일한인문학은, 21세기에 들어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재일 한인은 해방 이후 민족이나 이념과 같은 정치적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가, 차차 그러한 공적 담론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면이나 일상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모해 왔다.³⁾ 그러나 최근에 재일한인문학은 다시 차별이나 불평등과 같은 공적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⁴⁾ 이것은 2010년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혐한(嫌韓)’ 현상이 뜨겁게 끓어오르면서, 재일한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나 증오범죄가 일본 사회에서 증가한 것과 관련된다. 2012년 4월

2) 河合優子, 『日本の人種主義』, 青弓社, 2023, 144면.

3) 1945년 직후에 김달수와 김석범과 같은 1세대 작가들의 시선은 “한반도를 향해 있었”지만, 1960·197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2세대 작가들은 “관념상의 조국에서 현실 일본의 삶 쪽으로 조금씩 옮겨” 왔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모국체험”을 고리로 주인공의 청년기적 방향”을 형상화했고, 1990년대에 들어 유미리와 같은 작가는 “민족이라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주인공이 떠안고 있는 ‘소외’와 ‘불안’이라는 문제를 철저히 개인의 ‘자의식’의 측면에서 그려”내었던 것이다.(이승진, 「혐한 현상 앞에 선 재일문학」, 『일본학』 51집, 2020, 156-159면) 이어서 이승진은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유미리(柳美里)와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와 같은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이 이들 주제를 회피하거나, 혹은 매우 ‘가벼운’ 감축으로 전복시킴으로써 재일문학의 변화 흐름을 가시화시켰다고 주장한다.(위의 논문, 154면)

4) 김선정도 “이양지로부터 유미리로 이어지는 재일3세대문학이 개인적이고 자아정체성에 대한 소극적인 문제였다면, 『지나의 퍼즐』이라는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최실의 재일3세대문학은 적극적이고 재일이라는 감정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감정으로 개인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바깥 세상과의 소통과 관계의 문제로 나아가는, 좀 더 대외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김선정, 「최실의 『지나의 퍼즐』로 알 수 있는 재일한국인 3세대 문학의 새로운 경향」, 『일본근대학연구』 79집, 2023.2, 128면)라고 주장한다.

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약 3년 반 동안 1152건의 '헤이트데모'가 행해졌으며, 2013년에서 2014년의 약 2년 동안에는 200권이 넘는 혐한 혐중본이 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에는 여러 권의 헤이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⁵⁾ 2016년 6월 3일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신오쿠보 등의 한인타운에서 울려 퍼지던 헤이트 스피치는 멈춘 상태이다.⁶⁾

2010년을 전후하여, 재일 한인을 겨냥한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이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최실의 『지니의 퍼즐』(2016), 후카자와 우시오의 『가나에 아줌마』(2016), 『애매한 사이』(2017), 이용덕의 『당신이 나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 전에』(2020), 양영희의 『조선대학교 이야기』(2018)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최실의 『지니의 퍼즐』(2016)은 문제작으로서 일본 문단에서도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지니의 퍼즐』은 제59회 군조 신인문학상, 제33회 오다사쿠노스케상, 제67회 예술선장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월 이후 17년 만에 아쿠다가와상 최종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지니의 퍼즐』은 작가 최실의 실제 삶에 바탕한 작품으로서⁷⁾, 재일한인 박지니가 일본 초등학교를 거쳐 도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선학교의 중등부를 다니며 겪은 차별과 불평등을 실감나게 그려낸 작품이다. 지금

5) 河合優子, 앞의 책, 73면.

6)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재일외국인과 그 자녀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지역 사회에서 이들을 배제할 목적으로 선동하거나 모욕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7) 인터뷰 「외톨이인 나를 위로해 준 이야기」에서 최실은 “조선학교에서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였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학교에 가는 게 조금 부끄럽고 위화감이 있었어요. 빨간 넥타이도 그렇고요. 걸어갈 때는 행진하는 것처럼 걷는 것도 창피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초상화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점점 친해지면서 학교생활은 너무 재밌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학교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대포동 미사일 발사 사건이 터지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라고 말한다.(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9013> (최종검색일:2024.11.28) 이것은 『지니의 퍼즐』에서 지니가 겪은 삶과 일치하는 것이다.

까지의 연구사도 최실의 『지니의 퍼즐』이 재일한인이 겪는 차별과 불평 등을 밀도 있게 그려냈다는 것에 주목해 왔다.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신승모, 김태경, 엄정자, 이승진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신승모는 「지니의 퍼즐」에서 재일한인 “소녀가 일본을 벗어난 장소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을 얻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에 주목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본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사회/공생이란 것의 허상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작품”⁸⁾이라고 주장한다. 김태경은 2000년대 이후 현대일본의 사회문화를 ‘분노’라는 키워드로 고찰하는 글에서, 「지니의 퍼즐」이 “재특회로 대표되는 일본 사회의 ‘인종차별’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써내려간 ‘분노’의 목소리이자 고발이라 할 것”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엄정자는 “1998년 〈대포동1호〉가 발사되면서, 더욱이 김정은 체제가 확립되면서 일본정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조선학교에 대한 편견과 박해가 심해졌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작가 최실은 재일코리안이 겪는 갈등 번민을 소설에서 보여주려고 하였다.”¹⁰⁾라고 주장하였다. 이승진은 “‘협한’ 현상이라는 ‘심각함’을 정면에서 응시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재일조선인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¹⁾고 말한다.

이외에도 문경수는 재일한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바탕해, “작품의 배경이 된 조선학교의 성립과 현상을 소개하고 재일교포 2세인 필자가 이 작품을 어떻게 읽었는지 술회”¹²⁾하고 있다. 김계자는 『지니의 퍼즐』에

8) 신승모, 「전후 ‘재일 외국인’의 문학상 수상과 ‘다문화 사회’의 향방 - 최실의 「지니의 퍼즐」(ジニーのパズル)(2016)을 중심으로-」, 『일본학』 44, 2017, 317면.

9) 김태경, 「분노사회 일본 -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문화 분석」, 『일본학연구』 54, 2018, 163면.

10) 엄정자, 「인물관계로부터 보여지는 재일코리안 사회의 퍼즐식 - 『지니의 퍼즐』 분석」, 『문예운동』 141, 2019, 391면.

11) 이승진, 앞의 논문, 154면.

12) 문경수, 「작품해설」, 『지니의 퍼즐』, 은행나무, 2018, 180면.

표현된 일본사회의 북한 인식을 살펴보면, “작중인물 지니가 겪는 갈등은 재일(在日)하는 입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일’이 일본 속의 북한 문제로 등치되는 순간 정작 일본사회에 배태된 차별과 폭력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소거되어 버린다.”¹³⁾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영준은 “주변화 된 주인공이 자신이 관계하는 세계 속 각각의 대상과 현상에 대해 품은 양가적 감정을 분석”¹⁴⁾하고 있다. 이영호는 “『지니의 퍼즐』 속 민족교육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공생 시대 속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¹⁵⁾하며, “조선학교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스스로 혁명을 선택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지니를 통해 민족교육의 긍정적 역할을 보여준다.”¹⁶⁾고 결론내린다.

이 글도 기본적으로 『지니의 퍼즐』이 일본 인종주의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려냈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참고한 바탕 위에서, 인종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에 바탕해, 작품에 나타난 일본 인종주의의 특수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형 배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새롭게 주목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열세 살의 어린 학생이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떼어내서 던져버리는 충격적인 ‘혁명’의 문제점과 그러한 문제적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3) 김계자, 「재일문학의 북한 표상 - 최실의 『지니의 퍼즐』, 『인문과학연구』 41, 2020, 149면.

14) 조영준, 「재일한인문학의 오늘을 읽다, 최실의 『지니의 퍼즐』-주인공의 양가적 감정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9, 2020, 459면.

15) 이영호, 「재일조선인 문학 속 민족교육과 다문화공생-최실의 『지니의 퍼즐(ジニーのパズル)』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60집, 2020.6, 255면.

16) 위의 논문, 273면.

2. 다양한 인종주의의 양상

1) 전후 일본의 단일민족적인종주의

인종주의는 현재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일본 사회에서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인종주의를 인종만이 관련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인종주의는 주로 백인이 유색인종에 대해 행하는 것이지, 같은 황색 인종인 아이누나 오키나와 사람들, 재일 한인, 부락 출신자 등의 마이너리티에 대한 것은 인종주의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¹⁷⁾ 그러나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제 1항에는 인종주의를 “인종, 피부색, 계통 또는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에 따른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하는 것, 모든 공적 생활 분야에서 평등한 입장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누리거나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것”¹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종주의는 인종을 포함해 “민족, 혈통 등에 기초한 차별과 편견” 혹은 “어떤 집단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¹⁹⁾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종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은 “인간을 분류하고, 서열화하는 것”²⁰⁾이며, 이때 “분류의 기준이 되는 다름에는 신체적 특징 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징도 포함”²¹⁾돼 있다. 따라서 주류 일본인에 의한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도 인종주의에 해당한다.

패전 이후, 일본은 ‘일본인’, ‘일본어’, ‘일본문화’가 삼위일체를 유지하는 ‘단일민족’으로 스스로를 재규정하였다. ‘단일민족신화’에 기초한 전후 일본의 ‘단일민족적인종주의’는 문화적 인종주의와 인종없는 인종주의라는

17) 河合優子, 앞의 책, 141-142면.

18) 貴堂嘉之, 『差別の「いま」を読み解くための入門書』, 明石書店, 2023, 11면.

19) 위의 책, 10면.

20) 河合優子, 앞의 책, 15면.

21) 위의 책, 29면.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²²⁾ 문화적 인종주의는 문화를 본질화하며, 언어, 종교, 철학 등의 문화적 특징을 생물학적 특징처럼 불변하는 것으로 보고, 소수자들을 차이화하고 서열화한다.²³⁾ 특히 재일한인에 대한 문화적 인종주의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 등을 배경으로 한 서열화의 논리가 더욱 전경화된다.²⁴⁾

다민족 제국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있던 일본은, 패전과 함께 단일 민족 일본이라는 정반대 이데올로기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황국 신민’은 ‘일본 국민’ 아니면 ‘외국인’이 되었다.²⁵⁾ 이를 바탕으로 “조선인들은 배제하고 격리해 마땅”했으며, “식민 시대 인종주의가 노골적 인종 차별로 탈바꿈”²⁶⁾한 것이다. 재일조선인은 혐오와 비하, 멸시와 부인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본 사회에서 오랫동안 비가시적인(invisible) 소수자로 존재하기를 강요받아”²⁷⁾야만 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재일한인들을 인종적 관점에서 취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⁸⁾

『지니의 퍼즐』에는 일본의 단일민족적인종주의의 양상이 자세히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인종주의는 2010년 무렵부터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헤이

22) 위의 책, 136면.

23) 위의 책, 124-125면.

24) 위의 책, 140면.

25) John Lie, 『자이니치』, 김혜진 옮김, 소명출판, 2019, 36-39면. “1952년에서 1985년까지 법적 현실과 지배적 상식은 일본을 단일 민족 사회로 그렸다.”(위의 책, 287면)고 한다.

26) 위의 책, 78면.

27) 권숙인, 권숙인 엮음, 「일본의 ‘다민족다문화화’와 일본 연구」,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23면.

28) “일본에서 한국인들은 ‘범죄적이고 조악한 행위를 일삼는 열등국민’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불법자’의 이미지는 ‘제3국인’으로 취급받았던 70만 재일 동포의 존재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그들은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에 비유되기도 했지만 그들의 지위는 미국의 흑인보다 훨씬 열악한 것이었다. 한일관계가 악순환을 거듭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적 일본인들의 멘탈리티가 해방 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점에 있다.”(장달중, 장달중오코노기 마사오 공편, 「세계화와 민족주의 사이의 한일 관계」,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 이연출판부, 2008, 22면)

트 스피치란, ”특정 국가 출신이거나 ‘인종’을 이유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차별적인 언행”²⁹⁾으로서, 일본에서는 보통 “한반도 출신자나, 그 후손에 대한 증오심 표현”³⁰⁾을 의미한다. 카자마키 히로시는 “헤이트스피치는 그 사람의 속성(태어난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이유로, 마이너리티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퍼뜨리고, 배제·탄압을 선동하는 폭력적인 표현 행위”³¹⁾로서, 특히 헤이트 스피치가 ‘죽여!’ 등의 폭력적인 말을 통해 주변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것은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에 동의를 구하고, 폭력을 유도하고,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표현으로서 제노사이드(genocide)에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³²⁾ 지니는 일본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 시절부터 무서운 ”우익 집단의 자동차를 발견”³³⁾하고는 하였는데, 그 자동차에서는 ”조선인은, 나가라! 조선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75)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지니의 퍼즐』에서 조선학교에 다니는 재일한인 지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치마저고리’이다. ‘치마저고리’는 흑인의 검은 피부와 마찬가지로, 지니를 재일한인으로 인종화하는 결정적인 기호이다.³⁴⁾ 초등학생 시절 지니는 무서운 우익 자동차를 발견해도 “교복 속으로 국적을 감”(74)출 수 있었다. “검은 머리칼에 코가 낮고, 눈은 쌍꺼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는데, 언뜻 봐선 큰 차이가 없었”(75)기에, 일본인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모습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이다.³⁵⁾ 그러나 ‘치마저고리’를 입는 순

29) 貴堂嘉之, 앞의 책, 43면.

30) 위의 책, 43면.

31) 風卷浩, 「人種差別(レイニズム)とジェノサイド」, 『ヘイトをのりこえる教室』, 大月書店 2023, 135면.

32) 위의 책, 135면.

33) 최실, 『지니의 퍼즐』, 정수윤 옮김, 은행나무, 2018, 74면. 앞으로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본문 중에 면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34) 존 리는 “인종화란 어느 집단이 신체·문화적 특성으로 눈에 띄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John Lie, 『다민족 일본』, 김혜진 옮김, 소명출판, 2019, 74면)고 규정한다.

35) 특정한 민족 집단의 집단 정체성은 언어, 종교, 관습, 문화를 통해서 구성되는데, 존 리는

간, 지니가 재일한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니는 이케부쿠로역에 내려 제일 먼저 들어간 가게에서 입어 보지도 않은 원피스를 사서 근처 화장실에서 갈아입은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일본 사회에서 지니가 ‘치마저고리’에 바탕한 인종화에서 벗어나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학교에서는 치마저고리 교복이 아닌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라고 연락했지만, 지니는 축구부 응원에 빠졌기에 그 소식을 듣지 못한다. 오히려 지니는 조선학교를 상징하는 집단행사에 빠졌기에 혼자만 치마저고리를 입고 등교했다가 인종주의자의 표적이 된 것이다. 조선학교와 가장 거리가 멀었기에, 오히려 조선학교적인 특징을 상징하는 치마저고리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아이러니는, 일본내 인종주의자들에 의한 피해가 맹목적인 본질화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일본 내의 명백한 인종주의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게임센터의 악마’이다. 이 악마는 온갖 차별적 언설과 더불어 지니에게 폭행과 성폭력을 가한다. 주목할 것은 이 악마를 만나기 직전, 지니가 초등학교 시절 일본 친구들과 보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길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니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재일한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그러나 ‘게임센터의 악마’를 통해 드러난 명백한 인종주의로 인해, 지니가 일본의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초등학교의 역사수업과 역사교사로 인해 인종주의에 침윤되는 일본인 급우 이구치가 지니에게 한 말은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77)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게임센터의 악마’가 지니에게 했던 말도 “애초에 조센진은 더러운 생물이지.”(115), “본성이 드러나는군. 그렇지, 조센진은 원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이니치를 다수 일본 사회와 구별할 이러한 기초는 거의 없었다.”(John Lie, 『자이니치』, 김혜진 옮김, 소명출판, 2019, 227면)고 주장한다.

그런 놈들이야. 속이 더럽지, 안 그래?(117), “젠장, 더러운 걸 만져버렸어.”(118)로 모두 ‘더러움’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었다. 지니는 이구치의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라는 말을 듣고, “내 손이 더러웠나 싶어 손바닥을 뒤집어 확인”(77)하기도 한다. 이구치와의 일에 대해 들은 지니의 엄마도 “왜 더럽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어떨까?”(78)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니와 같은 재일한인이 ‘더럽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심리학자 아르베르 멘미가 “가공의 차이에, 일반적 결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부여된 가치에 바탕해 고발자가 자신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³⁶⁾이야말로 인종주의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것은 경청할만하다. 인종주의자의 고정관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하는 논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고정관념은 실천됨으로써 ‘진실이 되는’ 것”³⁷⁾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라는 말에, 손바닥을 뒤집어 확인하는 지니를 보며 이구치는 “바보 아냐? 조센진, 저리 가.”(77)라고 코웃음을 친다. 이것은 이구치 본인도 자신의 말이, ‘가공의 차이’에 불과한 허구의 고정관념에 불과함을 인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게임센터의 악마’를 통해 드러난 명백한 인종주의는 평범한 일본인들의 방관적 태도에 의해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본래 “차별은 차별자와 피차별자 두 사람만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자에게 동조하는 공범자를 포함한 삼자가 관여”³⁸⁾하며, 특정인에 대한 차별(=배제)에는 “발언자뿐만 아니라 동조하는 공범자가 필요”³⁹⁾하다. 그것은 ‘우리’라는 집단이 형성되어 ‘우리가 아닌 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36) 河合優子, 앞의 책, 119면.

37) 위의 책, 207면.

38) 위의 책, 161면.

39) 위의 책, 163면.

시스템인 것이다. 게임센터의 악마'로부터 지니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교복을 입은 여학생 둘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지니와 사내들을 본다. 이 때 '게임센터의 악마' 일행들은 가벼운 미소로 여학생들에게 길을 내주고, 여자애들은 곧 "즐거워 보이는 화려함 속"(114)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 때 여학생들은 조금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더니 마음이 놓인다는 듯, "깜짝 놀랐네. 뭐야, 저거, 무슨 일이지, 무서워"(114)라고 말한다. 충격적인 것은 그 여학생들이 "범죄자라도 보는 시선"(114)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지니이며, 지니도 "그 애들이 무섭다고 한 건 아무래도 남자들이 아니라 나인 것 같았다."(114)고 느낀다는 점이다. 이케부쿠로역에서 치마저고리를 입은 지니가 원피스를 고를 때, 지니를 바라보는 점원의 눈도 마치 지니에게 "손발이 붙어 있는 게 이상하다고 말하는 듯"(101)하였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헤이트 스피치나 인종 차별 발언은 관습의 인용행위이기 때문이다. 헤이트 스피치나 인종 차별 발언을 하는 사람은 관습, 다시 말해 사회적 담론에 호명(interpellation)되어, 사회적 담론을 인용하여 발언하는 것이다. 즉, 헤이트 스피치나 인종 차별 발언은, 그것을 인용하는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우선적으로 그 관습이 존재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카와이 유코는 이러한 사례의 구체적인 예로 제일 한인들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와 차별 발언을 들고 있다.⁴⁰⁾ 『지니의 퍼즐』에서 평범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일본 사회에 제일한인에 대한 차별적 담론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0) 카와이 유코는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에게 자주 던져지는 '나라로 돌아가라'는 발언이나, 중요 시위 참가자가 제일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두들겨 내쫓자'라고 외치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 뿌리 깊은 영향력을 가진 단일 민족 신화, 즉 일본은 일본인의 나라라는 사고방식이 관습이 되어서, 그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위의 책, 233-234면)고 주장한다.

2) 일본학교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인종주의

인종주의는 크게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가 언설, 스테레오타이프, 편견 등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법률, 정책, 제도 등으로 구체화 된다.⁴¹⁾ 1960년대 시민권 운동 시대의 흑인 운동가 찰스 해밀턴은, 인종주의를 경멸적인 언동이나 폭력 등의 개인적인 것과, 제도 또는 구조(정치, 법률, 노동, 교육, 문화 등)와 관련된 사회적인 것으로 나눈 후에, 후자를 제도적 인종주의로 규정했다. 제도적 인종주의는 명시적 인종주의가 공식적으로 부정된 후에도 남아,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인종차별적 사회가 지속되도록 만들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한다. 또한 제도적 인종주의는 마이너리티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시하기 어렵도록 하는 인종주의라고 할 수 있다.⁴²⁾

『지니의 퍼즐』에서 일본학교는 앞에서 설명한 제도적 인종주의가 실현 되는 공간이다. 본래 일본초등학교에 다닐 때, 지니의 성은 한국식이라 누구나 지니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75)을 알고 있었다. 최소한 초등학교 내에서는 이러한 한국식 이름이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았다. 이 무렵 일본인 친구들과는 마음이 잘 맞고 말이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던 것이다. 지니는 일본인 친구들과 격의 없는 사이로서 "국적을 숨길 마음이 전혀 없었"(76)으며, 그렇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조선학교로 진학할 거라고 모두에게 말"(76) 정도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역사 수업 시간"(76) 이후 모든 것은 변모한다.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이야기"(76)를 배우기에 앞서, 지니는 크게 긴장한다. 선생님은 단 몇 줄 만에 끝나는 식민지 시대 한반도 역사를 담담하게 읽더니 "그래, 이젠 박지니 같은 사람들 이야기네"(76)라고 덧붙인

41) Golash-Boza, Tanya, "A Critical and Comprehensive Sociological Theory of Race and Realism," *Sociology of Race and Ethnicity*, 2(2), 2016, p.131.

42) 河合優子, 앞의 책, 127-128면.

다. 그 순간 반 아이들은 일시에 지니를 바라보고, 지니는 어쩔 줄 몰라 혀를 내밀고 실실 웃을 뿐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그 역사 수업이 “겨우 몇 분 만에 끝났다”(76)는 사실이다. 역사 선생은 과거 침략에 관련된 역사를 ‘박지니 같은 사람들 이야기’로 한정지었고, 이를 통해 지니를 향한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이 일은 지니를 향한 인종주의가 작동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

며칠 후에 지니와 가장 친했던 일본인 급우 이구치가 지니의 책상까지 찾아와, “곤충이라도 관찰하듯”(76) 지니의 얼굴을 뻘히 쳐다보다가 아무 일도 없이 자리를 떠난다. 그날 하룻길에 역 플랫폼에서 이구치를 발견한 지니는 “같이 가자!”(77)며 달려가지만, 이구치는 무시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니가 이구치의 팔을 잡자, 이구치가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77)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결국 지니는 학교의 아이들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아이가 된다. “그날 이후 조선학교란게 뭐야, 하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나 같은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야하고 역사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짧게 설명’(79)한다. 이제 지니는 ‘일본인 친구’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나 같은 조선인’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그저 조금씩 거리를 두며 지니를 멀리하게 된다. 이제 지니는 설령 원하지 않더라도 조선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심지어 이후에도 역사 선생은 “죄인 보듯”(79) 지니를 보며, 지니의 자리를 지날 때나 계단에서 지나칠 때마다 “겉눈으로 흘끗, 증오마저 느껴지는 시선”(79)으로 지니를 바라본다. 이러한 역사 선생의 모습은 전형적인 인종주의자의 모습이며, 말할 것도 없이 반성적 역사의식이 결여된 것이다. 조영준도 “일본학교의 역사 선생은 반성적 역사의식이 결여된 인물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⁴³⁾고 하여, 역사 선생의 문제점을 날카

43) 조영준, 앞의 논문, 471면.

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 수업'은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차원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식민지 시대 한반도 역사는 “단 몇 줄 만”으로 이루어진, “겨우 몇 분 만에 끝”나는 분량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으로는 역사 선생이 설령 반성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대로 된 과거사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일본의 사회학자 카와이 유코는 일본학교에서의 교육 내용과 관련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일본에 영주하게 된 재일 한국인, 일본에서 브라질로 이주한 '일본인'의 자손들인 재일 브라질인, 아이누나 오키나와 사람들 등의 관점을 포함해 사회과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지 않을까⁴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니의 퍼즐』에서는 재일한인에 대한 인종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일본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실감나게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3) '일본형 배외주의'의 형상화

최실의 『지니의 퍼즐』이 일본의 인종주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일본 인종주의의 특수한 형태인, '일본형 배외주의'의 작동양상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뒤이어 지니가 겪는 일들을 통해 '일본형 배외주의'의 메커니즘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배외주의는 “국가는 국민만의 것이며, 외국 출신(으로 보이는) 집단은 국민국가에 위협이라고 보는 이데올로기⁴⁵⁾”를 가리키는데, 일본에서는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가 결성(2007년 1월)된 2000년대 후반 무렵부터 재일 외국인, 특히 재일한인

44) 河合優子, 앞의 책, 145면.

45) 樋口直人,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 - 재특회, 왜 재일코리안을 배척하는가』, 김영숙 옮김,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5, 21면.

을 명시적인 표적으로 하는 배외주의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히구치 나오토는 반이민 정서에 바탕을 둔 서구의 배외주의와는 달리 근린제국과의 역사적 관계와 역사수정주의에 바탕을 둔 일본의 외국인 배척을 ‘일본형 배외주의’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

히구치 나오토는 다민족 사회주의 국가를 계승한 나라가 냉전 후에 국민국가로서 자기를 새롭게 정의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브루베이커(Brubaker)의 3자 모델에 따라 재일한인에 대한 배외주의를 설명한다. 민족 문제와 관련한 3자 모델의 3자는 ‘민족화국가’, ‘민족의 국가’, ‘내셔널 마이너리티’를 가리킨다. ‘민족화국가’는 다양한 민족성을 포함하는 국민 국가를, ‘민족의 조국’이란 어떤 국가가 다른 나라에 사는 동포를 같은 민족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국가를, ‘내셔널 마이너리티’란 수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배적인 민족과는 다른 민족을 의미한다. 이 때 “내셔널 마이너리티의 운명은 ‘민족화국가’와 ‘민족의 조국’이 대립하는 내셔널리즘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것”⁴⁶⁾이라고 브루베이커는 주장한다. 재일한인 문제와 관련하여 ‘민족화국가’, ‘민족의 조국’, ‘내셔널 마이너리티’에는 각각 일본, 한국·북한, 재일한인이 해당한다.

그런데 히구치 나오토에 의하면, 일본 내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북한(‘민족의 조국’)에 대한 적의가 강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에서,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에는 제국과 식민지라는 관계가 존재하였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전후 보상을 포함한 식민지주의 청산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⁴⁷⁾ 또한 1990년대 이후에도 냉전구조가 잔존하고 과거 제국과 식민지가 대등한 경제적 플레이어가 된 것도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한다.⁴⁸⁾ 이로 인해 2000

46) 위의 책, 336면.

47) 카자마키 히로시는 재일코리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설에는 “일본이 과거에 했던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 침략이라는 부정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정당화하고 싶다는 욕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風卷浩, 앞의 책, 137면)고 주장한다.

년대에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최대 적수”⁴⁹⁾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 외국인인 일본에 거주하는 마이니리티로서 간주되지 못하고, “동아시아 지정학에서 각국의 대리인”⁵⁰⁾이 되었다. 결국 ‘일본형 배외주의’는 “한국·북한과 재일 코리안을 동일시하는 배외주의”⁵¹⁾인데,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초점이 되었을 때 조선 국적 사람”⁵²⁾들에 대한 억압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니의 퍼즐』에서 일본형 배외주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지니가 겪는 인종주의적 폭력을 통해서이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의 인종주의는 극적으로 악화된다. 지니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게 위험한 장소가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위험한 곳이 돼버리다니.”(98)라며 놀랄 정도이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니는 무사히 주조 역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⁵³⁾ 그러나 “역 플랫폼에서나 전철 안에서도 치마저고리를 입은”(95) 지니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고, “언제 욕설이나 주먹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긴박한 분위기”(95)였다.

지니는 심장이 터질듯한 긴장을 느끼며, 전철이 주조역에 도착하려 하는 순간,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를 듣는다. 문이 열리고 지니가 내리려고 하지만, 누군가 엄청난 힘으로 지니의 가방을 잡아챈다. 이 와중에 CD플레이어가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고, 지니는 주조역에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전철에 올라탄다. 지니는 조선학교가 있는 주조역을 지나 이케부쿠로 역에서야 간신히 내린다. 벤치에 앉은 지니는 “가방을 품에 안고 되도록 치마저고리가 감춰지길 빌”(98)며, “한시바빠 치마저고리를 벗고 안심하고

48) 樋口直人, 앞의 책, 22-23면.

49) 위의 책, 277면.

50) 위의 책, 327면.

51) 위의 책, 372면.

52) 위의 책, 379면.

53) 도쿄의 기타쿠 주조에는 도쿄조선중고급학교가 있다.

싶다는 마음”(98)이 들 뿐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일본형 배외주의’의 핵심은 일본내 재일한인을 ‘한국이나 북한의 대리인’으로 여기는 것이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대한 일본 사회의 적대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으며, 동시에 ‘북한의 대리인’으로 인식되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적개심도 끌려올렸던 것이다. 결국 지니는 일본인들의 방조 속에 ‘게임센터의 악마’에게 폭행과 성폭력을 당한다. 이러한 비극은 지니만의 일은 아니어서, 다른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이다. 지니는 지니와의 통화에서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130)라고 말한다. 수도물에 독을 탔다는 협박 전화가 학교로 와서 교내 모든 수도꼭지에 접촉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교내 자동판매기도 판매 금지가 돼서 집에서 물통을 들고 오거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학교에 오기도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학생들을 잡아서 빨가벗겨 매달아놓겠다는 전화”(131)도 오고, 어떤 아이는 누군가 뺨에 맞기도 한다. 이처럼 『지니의 퍼즐』은 일본의 특수한 인종주의인 ‘일본형 배외주의’가 작동하는 양상을 섬세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종주의에 맞선 지니의 ‘혁명’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

일본의 인종주의로 인해 최소한의 존엄성도 유지할 수 없게 된 지니는 ‘혁명’을 감행한다. 지니의 ‘혁명’이란 조선학교 교실에 걸려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액자를 깨뜨려서 초상화를 창 밖으로 집어던지는 행동을 말한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형 배외주의’의 메커니즘에 따라 지니는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더욱더 ‘북한이라는 네이션’에 결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세살 중학생이 떠올린 대응책은, 북한이라는 ‘네이션’과의 관련성을 끊어버리는 상징적 행위였던 것이다. 지니

는 초상화를 바라보며, “북조선은 지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경 너머 일본의 조선학교까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마라.”(153)라고 선언하는 마음으로 ‘혁명’을 감행한다.⁵⁴⁾ 재일조선인을 ‘북한의 대리인’으로만 보는 일본 사회의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북조선이라는 네이션’의 상징인 초상화의 제거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니의 혁명’은 차별에 맞서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앞서도 살펴봤듯이, 차별은 기본적으로 ‘차별을 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차별을 당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속성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그 자체가 인종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니의 ‘혁명’은 ‘차별을 하는 쪽’이 아니라 ‘차별을 당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

지니 역시 ‘혁명’을 수행하기 직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지니는 “나쁜 건 협박을 하는 놈들이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143)이라며 ‘차별을 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곧 “하지만 왜, 애초에 왜 우리가 협박을 받아야 하지? 우린 그것부터 직시하고 생각해야 한다.”(143)라는 모순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모순은 지니가 성명문에서 자신을 차별하는 사회가 “엉터리 같은 세상”(136)이라고 인지하면서도, 막상 일본 사회를 향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나쁜 건 ‘차별을 하는 사람’이지만, ‘혁명의 대상’은 ‘차별당하는 사람들’ 쪽에 가깝다는 이 모순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은 초상화를 내동댕이치기 직전에 발생한다. 지니에게 재환은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둘은

54) 김계자는 『지니의 퍼즐』에서 “조선학교를 곧바로 북한에 등치시키는 메커니즘이 『편지』의 삽입을 통해 효율적으로 작동”(김계자, 앞의 논문, 159면)하고 있거나 “마치 조선학교가 리틀 북한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위의 논문, 160면)이라고 주장한다. 김계자는 『지니의 퍼즐』에서 작가가 ‘조선학교=북한’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조선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겪으며, 지니는 “온화하고 다정한 미소”(93)를 가진 재환의 “눈동자가 가능하면 앞으로도 쪽 나를 봐주면 좋겠다”(93)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랬던 지니는 초상화를 내동댕이치기 전에 재환에게 “이케부쿠로 게임센터, 파르크 지하에”는 “가지마.”(155)라고 소리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르크 지하의 게임센터는 일본의 인종주의가 가장 악질적으로 작동하던 곳이었다. 자신이 받는 차별의 원인을 ‘초상화’에 두고 그것을 제거하는 순간에, 지니는 가장 애뜻한 존재에게 오히려 일본의 인종주의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혁명’ 이후 지니가 “천국에 계신 할아버지께”(160) 쓴 편지에도 이러한 모순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천국에서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난 이제 어찌면 좋아. 내가 맞서야 할 상대는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나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더는 일본 이름도, 한국 이름도, 어느 쪽도 말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그런 기분이 들어. 싸우고 싶어도 내 결의가 불꽃처럼 흔들리며 흩어지는 것만 같아. 학교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안에 모순이 느껴져요. (162)

‘혁명 이후’에 지니가 정신병동에 가게 된 이유는, 결국 이 모순이 근본적으로 해결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순은 왜 발생한 것일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네이션으로서의 북한’과는 달리, 일본이라는 사회가 지니에게는 분리가 가능한 세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모어로 하며 일본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지니에게는 언어조차 한국어보다는 일본어가 더욱 가까운 언어이다. 조선학교에 온 지 2개월이 되었을 때도, 지니는 “니나가 교가를 인쇄해서 가타가나로 독음을 달아주기 전까진”(68) 노래를 부르지 않을 정도이다.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지니 세대까지 갈 것도 없이, “전후 자이니치 집 단에서 제1언어는 늘 일본어”⁵⁵⁾였던 것이다. 일본이 지니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의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니가 이케부쿠로역 파르코 지하에 있는 게임센터에서 일본인 친구들과 스티커 사진을 찍으며 놀았던 추억에 잠기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니는 “그냥 그때 그곳 학교를 다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109)라는 상념에 잠기다가, 결국 게임센터 안에서 길을 잃고 만다, 나중에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110)라고 생각하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이 곳에서 치마저고리를 입은 지니가 길을 잃고 마는 것은, 지니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두 번째로 열세살 중학생이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일본 인종주의의 힘이 거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헤이트 스피치와 차별적 언설이 넘쳐나며, 그것이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사회에서 열세살 소녀가 그에 맞서 정면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지니가 큰 폭력을 경험하고 등교도 하지 못할 때, 어른인 지니의 엄마조차 “조선 말을 못한다는 걸 알면서 어쨌선 연락을 소홀히 했느냐.”(127)며, 쌓인 분노를 모두 조선학교에만 터뜨리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가 최실은 인터뷰 「외톨이인 나를 위로해 준 이야기」에서 “지니라면 다른 친구들이 자기가 겪었던 사건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자유를 줬던 학교 안에서 뭔가 폭발해 내는 것이 열세 살 지니한테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요.”⁵⁶⁾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지니에게 일본의 인종주의란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에, 열세 살 지니가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겪은 차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조선학교의 ‘초상 화를 때어버리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니가 겪는 이러한 모순이

55) John Lie, 『자이니치』, 김혜진 옮김, 소명출판, 2019, 198면.

56)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9013>(최종검색일:2024.11.28).

야말로, 일본의 인종주의가 얼마나 괴물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지 우회적으로 증명한다.

『지니의 퍼즐』은 이러한 모순을 넘어 지니가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미국에서 지니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는, 유명한 그림책 작가인 스테파니이다. 홈스테이 아주머니인 스테파니는 매우 이상적인 인물로서, “그 지역에서 유명하고, 이름뿐 아니라 얼굴까지 알려진 그림책 작가”(29)이다. 『지니의 퍼즐』의 처음과 끝은 스테파니와 지니의 대화로 되어 있는데, 처음 스테파니는 지니에게 “상대는 하늘이야. 도망칠 덴 없어. 그때는 하늘을 받아들이지. 도망쳐선 안 돼.”(46)라고 충고한다. 이에 지니는 “어쩌면 스테파니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하늘이 무너진 그때, 나는 하늘을 받아들여야 했는지도 모른다.”(46)고 생각하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작품의 마지막은 지니가 “하늘을 받아들일래. 받아들일 거야.”(177)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난다.

『지니의 퍼즐』에서 지니의 이력(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조선학교를 거쳐 미국으로 유학)은 작가 최실의 이력과도 겹친다.⁵⁷⁾ 최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지니의 퍼즐』을 통해 일본의 인종주의를 고발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이력에 비추본다면, 작품의 마지막에 지니가 ‘하늘을 받아들일래. 받아들일거야.’라고 다짐하는 것은, 열세살의 나이에는 저항조차 꿈꾸지 못했던 일본의 인종주의에 맞서 새로운 투쟁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새겨볼 수도 있을 것이다.

57) 신승모는 최실이 “1985년에 재일한국인 3세로 태어나 일본의 소학교를 나온 후에, 조선학교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배우를 지망해서 일본으로 돌아와 영화학교에 입학한 뒤, 각본이나 그림책을 써온 것으로 되어 있다.”(신승모, 앞의 논문, 308면)고 설명한다.

4. 결론

패전 이후, 일본은 문화를 본질화하고 서열화의 논리가 전경화된 문화적 인종주의에 바탕한 단일민족적인종주의를 갖게 되었다. 『지니의 퍼즐』에 이러한 인종주의는 지니가 경험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다음으로 일본내의 제도적 인종주의는 지니가 다녔던 일본 학교의 역사수업을 통해 실감나게 형상화되고 있다. 최실의 『지니의 퍼즐』이 일본의 인종주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일본 인종주의의 특수한 형태인, ‘일본형 배외주의’의 작동양상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맞서는 방법으로 열 세살의 지니는 조선학교 교실에 걸려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 액자를 깨뜨려서 창 밖으로 집어던지는 ‘혁명’을 선택한다. 지니는 일본의 인종주의에 맞서는 길은 ‘북한이라는 네이션’과 절연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차별은 기본적으로 ‘차별을 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차별을 당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니의 ‘혁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니의 ‘혁명’이 지닌 모순은, 일본이라는 사회가 지니에게는 ‘하늘’에 비유될 정도로 분리 불가능한 세계라는 점과 열세살 중학생이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일본 인종주의의 힘이 거대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나아가 최실의 『지니의 퍼즐』에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겹쳐지는 양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다. 일단 이 작품에서 재일한인의 인종화를 상징하는 ‘치마저고리’부터가 이미 여성화 된 기호인 것이다. 또한 ‘게임센터의 악마’는 인종주의적 폭력에 더해 성적인 폭력까지 지니에게 가하였다. 이것은 ‘게임센터의 악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조선학교에는 “여학생들을 잡아서 빨가벗겨 매달아놓겠다는 전화”(131)가 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스테파니와 함께 여행을 가서, 멀트노마 폭포에 얽힌 전설을 듣고 지니가 크게 분노하는 장면도 눈여겨볼만 하다. 그 전설의 핵심은 딸을 희생시켜 부족의 위기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

기를 듣고, 지니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정말 싫다.”(41)고 질색을 한다. 최실의 『지니의 퍼즐』에 드러난 국민국가의 근본적인 폐쇄성과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의 교차라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 崔実, 『ジニのパズル』, 講談社, 2016.
 최실, 『지니의 퍼즐』, 정수윤 옮김, 은행나무, 2018.
 인터뷰 「외톨이인 나를 위로해 준 이야기」,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9013>.

2. 단행본

- 권숙인 엮음,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김계자, 「최실과 양영희의 조선학교 이야기」, 『일본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문학』, 역락, 2020.
 貴堂嘉之, 差別の「いま」を読み解くための入門書, 明石書店, 2023.
 樋口直人,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 - 재특회, 왜 재일코리안을 배척하는가』, 김영숙 옮김,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5.
 風巻浩, 「人種差別(レイシズム)とジェノサイド」, 『ヘイトをのりこえる教室』, 大月書店 2023
 河合優子, 『日本の人種主義』, 青弓社, 2023.
 Lie, John, 『자이니치』, 김혜진 옮김, 소명출판, 2019.
 _____, 『다민족 일본』, 김혜진 옮김, 소명출판, 2019.

3. 논문

- 김계자, 「재일문학의 북한 표상 - 최실의 『지니의 퍼즐』」, 『인문과학연구』 41, 2020, 149면.
 김선정, 「최실의 『지니의 퍼즐』로 알 수 있는 재일한국인 3세대 문학의 새로운 경향」, 『일본근대학연구』 79집, 2023.2, 128면.
 김태경, 「분노사회 일본 -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문화 분석-」, 『일본학연구』 54, 2018, 163면.
 문경수, 「작품해설」, 『지니의 퍼즐』, 은행나무, 2018, 188면.
 신승모, 「전후 '재일 외국인'의 문학상 수상과 '다문화 사회'의 향방 - 최실의 「지니의 퍼즐(ジニのパズル)」(2016)을 중심으로-」, 『일본학』 44, 2017, 317면.
 엄정자, 「인물관계로부터 보여지는 재일코리안 사회의 퍼즐식 - 『지니의 퍼즐』 분석」, 『문예운동』 141, 2019, 391면.

- 이민호, 「在日 조선적의 정체성과 무국적 동포 정책의 모순점」, 『문학인』 15호, 2024년 가을호, 284면.
- 이승진, 「협한' 현상 앞에 선 재일문학」, 『일본학』 51집, 2020, 156-159면.
- 이영호, 「재일조선인 문학 속 민족교육과 다문화공생-최실의 『지니의 퍼즐(ジニーのパズル)』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60집, 2020.6, 255면.
- 조영준, 「재일한인문학의 오늘을 읽다, 최실의 『지니의 퍼즐』-주인공의 양가적 감정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9, 2020. 459면.
- Tanya, Golash-Boza, "A Critical and Comprehensive Sociological Theory og Race and Realism," *Sociology of Race and Ethnicity*, 2(2), 2016, p.131.

<Abstract>

Korean Japanese literature and Racism – Focusing on Choi Sil's *Genie's Puzzle*

Lee, Kyungjae

This article attempted to examine the specificity of Japanese racism in 『Genie's puzzle』 based on various theories related to racism. In particular, after North Korea's launch of the Daepodong missile, a new attention was paid to the way 'Japanese-type extraterritoriality' works, and based on this, the shocking reason for the 'revolution' in which a 13-year-old young student removes and throws a portrait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away and examines its problems. After the defeat, Japan advocated monolithic racism based on cultural racism, in which culture was essential and the logic of ranking was foregrounded. This racism is revealed through Hate speeches that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 Japan since around 2010. In 『Genie's puzzle』, Japanese institutional racism is realistically embodied through Japanese schools experienced by the Genie. The most important part of 『Genie's puzzle』 in relation to Japanese racism is that it shows in detail the operation of 'Japanese-type extraterritoriality', a special form of Japanese racism. The core of 'Japanese-type extraterritoriality' is to regard Koreans in Japan as 'agents of South Korea or North Korea'. The launch of the Daepodong missile raised hostility towards North Korea to the maximum and at the same time raised hostility towards Koreans in Japan, who are recognized as 'the agents of North Korea'. In this situation, Genie breaks the portrait frame hanging in the classroom of the Joseon school and throws it out the

window. The 13-year-old genie decided that the way to confront Japanese racism was to insulate it from the ‘nation of North Korea’ symbolized by the portrait. Since discrimination is basically a matter of ‘a discriminator’ and not a matter of ‘a person being discriminated’, the ‘revolution’ of the genie can never be the right solution. The reason why Genie went to the psychiatric ward after the ‘revolution’ was that she could not overcome the contradictions of her ‘revolution’. The contradiction of Genie's ‘revolution’ indirectly proves how monstrous power Japanese racism has. A full-fledged consideration of the intersection of racism and women's discrimination revealed in the puzzle of Choi Sil's Genie will be left as a future task.

Key words: Koreans in Japan, monolithic racism, institutional racism, Japanese-style exclusionism, ethnicity, nation

투 고 일: 2024년 12월 6일

심 사 일: 2024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1일

수정마감일: 2024년 12월 27일